

이며肉髻는若干늘은便이다。眉目이秀麗하고兩볼이豊美하며 코는 옷투하고口脣은담은채微笑를 띠우고있다。兩耳는길게 처져있고 이마에는白毫를 끼었던구멍이있다。顔面은圓形에 가까

우며 목에는二道를俱備하고左手는팔을굽혀허리위에올렸고손바닥을若干오므려서무엇인가를올려놓은것같고右手는밀으로내려뜨려서內掌하였고두팔은蓮花臺上에左右로벌리고있다。法衣는通肩이며二道아래에옷깃같이보이는線이있다。裙衣上에가슴左쪽에서右下로두른帶와腰部에매듭이보이며法衣의주름은兩팔에걸쳐서次次넓어지면서平行圓弧를그리고밀으로흘렀고法衣에는彩色하였던赤白色의痕跡이있는듯하다。

佛像造成年代는高麗初로推定되며京畿道內의磨崖佛中最大의優作으로생각된다。아마도國寶的인價値가있을듯하며앞으로의保存이要望된다。次後細密한調査研究가기대되는바이다。

註

- ①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津寬外里
- ②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四一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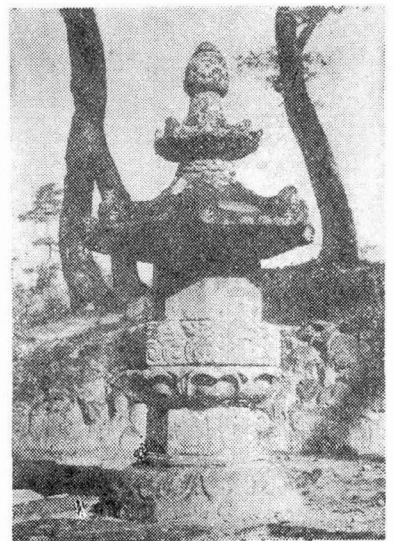
雙谿寺 浮屠에 對하여

鄭 永 鎬

慶南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 所在雙谿寺境內에 國寶로 指定하게 된(第

五六七號)浮屠一基가 現存하여 調査한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이 浮屠는 本寺에 서約一〇〇m 北西쪽으로 바라다보이는 山봉우리 위에 位置하였으나 그 周圍에 松林이 울창하여 한눈에 찾기는 困



難하다。봉우리의 稜線을 方約 7m로 平平히 닦아 石壇을 造築하고 그 中央에 浮屠를 建立하였는데 이 곳이 原位置인 듯 하였다。浮屠는 基壇、塔身、相輪의 三部分으로 된 全高二・〇五m의 八角塔이다。基壇部는 地臺石이 거의 埋沒되어 그 一部가 露出되어 있으며 下臺石은 八角基臺 위에 八葉複瓣의 覆蓮을 만들었고 八角基臺의 側面에는 아무런 彫刻도 없다。이 覆蓮部 上面에는 一段의 中石과임을 刻하였고 그 위에 二段의 받침으로 中石을 받고 있다。中石은 八面に 모두 圓形에 가까운 眼象을 새겼는데 그 외 다른 裝飾은 없으나 流麗한 手法이 注意를 끌었다。中臺石의 仰蓮 또한 八葉의 複瓣으로 下臺石의 覆蓮과 對稱하였는데 그 下部에도 二段의 받침을 만들었다。中臺石 仰蓮上에는 高二・二cm의 八角臺石이 놓였으며 各面에는 雲紋을 굵게 浮刻하였다。塔身에는 八面に 全히 아무런 彫飾이 없다。蓋石은 亦是 八角이며 八個의 귀퉁이 달려 있었으나 現在는 三個가 破損되어 地上에 떨어져 있고 五個만 남아 있다。지붕 위에는 蓮紋으로 推測된 彫刻이 있는 覆鉢을 올리고 다시 그 위에 조그만 八角寶蓋를 올렸는데 이 蓋石에도 八個의 귀퉁이 달려 있는 바 모두 完存하다。이 寶蓋 위에는 寶珠를 올렸는데 比較的 높은 便이었다。浮屠의 保存은 良好한데 蓋石의 一部가 破損되었음이 遺憾이다。塔全體로 보아 그리 裝飾的인 技巧는 안보이며 精鍊된 最優秀作으로 보기는 어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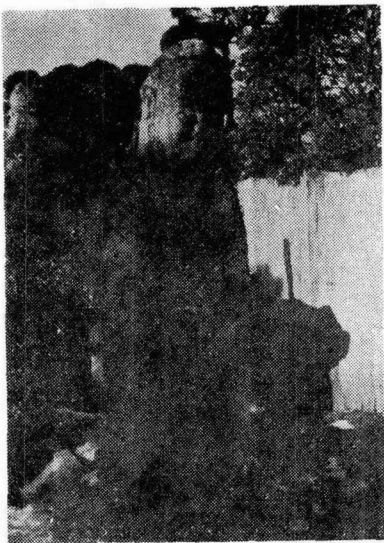
며 各部分의 彫飾이 簡素하고 樣式이 形式化된 點에서 비록 時代의 降下를 免키 어려우나 上下蓮瓣의 豊肥한 品이라든가 雅淡한 全體均衡 및 眼象의 整美한 手法으로 보아 羅末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되었다.

이 浮屠를 俗稱 眞鑑禪師大空塔이라고 하는 바 그 然由로는 다만 本寺 法堂 前庭中央에 眞鑑禪師大空塔碑가 建立되어 現存하기 때문에 兩遺物을 關聯시키는 까닭이라 하겠다. 이 碑에 對하여는 「大東金石書」에 雙谿碑。(在晋州智異山)雙谿寺眞鑑國師碑。翰林學士崔致遠撰並書額。唐 僖宗光啓三年丁未立。新羅眞聖女王元年

라 있어, 이 碑는 新羅第五十一代 眞聖女王元年(西紀八八七年)에 建立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碑文은 眞鑑禪師慧昭의 事蹟을 崔致遠이 王命에 依하여 撰書한 것이다.

群山 中央路 石造如來立像

申 榮 勳



群山市 中央路二街八〇의 一號 金容護氏宅 畔자울타리 外에 不規則하게 놓여진 石造物들이 흙

塔身을 꼭 맞추어 놓지 못한 三層石塔 一基와 後補物인 臺座위에 坐는 石造如來立像 一軀가 比較的原形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들과는 조금 떨어진 장소에 水磨한 長方形 台石과, 凹形 溝가 있는 基座가 半埋沒되어 있다.

正面直立의 石佛의 높이는 二・〇七m(臺座 除外) 肉髻가 높는데 素髮을 하였고 耳輪과 三道는 비교적 뚜렷하다. 白毫는 없고 眉下眼、鼻、口唇은 무엇에 依하여 몹시 破損을 입었다. 全體의 얼굴 모습은 圓滿 重厚한데 입가에 얽은 미소를 띠었다. 法衣는 通肩를 하였는데 前面의 衣紋은 統一期 金銅立佛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波狀形이 重疊하는 形式이다. 裙의 下端은 下向線條로 描出하였다. 印相은 右手는 直下하고 左手는 손을 조금 안쪽으로 구부린채 自然스럽게 손을 펴서 內掌하고 左手는 손바닥을 上向하여 가슴앞에 구부러 들고 寶珠를 올려 놓았다. 背面은 전혀 손을 낸 자국이 없다.

埋沒石物中 前述한 凹形溝가 있는 基座가 있어 溝의 長邊 七八cm와 石佛下端前面과는 一・五cm의 差가 있고 基座의 溝 前面에 細長한 발가락 이 다섯개씩 사이를 두고 浮刻되어 있어 元 基座였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一・五cm의 차이는 지금 基座의 溝가 佛像下端의 크기보다 四方一cm씩 큰걸로 이루어 지나치게 들어가 끼여져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인 듯하다. 臺座는 隅入된 부분이 있는 方形인데 石佛下端처럼 거칠게 손질 되어 있다. 목이 발고 法衣上端 右側의 衣紋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접힌 점과 顔面이 高麗佛처럼 통통하게 생긴점 衣紋이 유려하게 흐르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체로 高麗初에서 中期에 이르는 作品이라고 보겠다. 특히 佛體에 둥근맛이 없고 모를 남겨 놨다는 것들이 退化한 高麗手法을 暗示하여 주는 듯하다.

이 石物들은 日人들이 庭園을 꾸미려고 옮겨다 놓았던 것들이라고 하는데 六・二五前까지는 數가 더 많았었다고 한다. 傳하는 말로는 井邑의 어느 寺址에서 옮겨 왔다고 하지만 原位置의 究明은 어렵겠다. 群山에는 日人들이 옮겨온 石物이 相當數 殘存하고 있다는데 全面的인 調査가 있어야 하겠다.